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2024년 첫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일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생활표어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마6:33>  
주체찬송 : 찬송가 438장. (516장. 주님의 평화가. 먼저 그 나라와)
- 생활공동체 영성수련회가 9일(화)과 11일(목)에 있습니다.
- 다음 주일에 예배 반주자와 연령별사랑방 교사를 임명합니다.  
연령별사랑방 방모임은 다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제 41 - 1 호

2024년 1월 7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장미숙 권사 ( 이나영 청년 성년되는 생일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김영화 권사 ( 신년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만남, 그 놀라운 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해입니다. 매년 1월 첫 주가 되면 기독교대안학교연맹에서 주최하고 회원학교들이 돌아가면서 주관하는 기대연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60여개가 넘는 회원학교에서 올 해도 400명이 넘는 기독교대안학교에 속한 교사들이 모여 2박3일 동안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강의도 듣고, 교제도 나누며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삶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상을 벗어난다는 것은 설레기도 하지만 귀찮게 느껴질 법도한데 매년 서울, 경기 지역을 비롯하여 멀리서 경남과 전남, 제주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모입니다. 또 그곳에 모인 교사들은 그 모임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그 시간들을 기대하니 그 만남이 참 소중한합니다.

백범 김구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좋은 집안이었으나 집안이 망하여 황해도 해주 지역에 신분을 숨기고 소작농, 노비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18살에 가난한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때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좋은 집안, 벼슬 집안으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사람들과 싸우는 의병들을 지휘했던 안태훈진사입니다. 이 안진사의 15세 첫째 아들도 앞장서서 농민들과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김구선생님의 농민군이 크게 패하여 숨어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 안태훈진사의 부대가 있어 곧 만나서 싸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김구선생님을 알고 있던 안태훈진사는 적이었지만 아까운 인재를 잃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싸우지 말고 서로 돕자는 내용의 밀약을 제안합니다. 이후에 김구선생님이 패하자 안진사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집에서 지내다가 몇 번 뜻이 맞지 않아 옮기기도 했지만 이 둘의 만남은 한반도에 중요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함께 싸웠던 안진사의 첫째 아들인 안중근의사, 후에 안중근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하자 김구선생님은 전에 같이 지냈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안중근의사가 사형 당하자 안중근의사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무척 애를 씁니다. 결국 안중근의사의 두 동생과 함께 임시정부의 일을 하고 김구선생님의 아들과 안중근의 조카는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그저 적으로 서로 총을 겨누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들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역사가 달라지기도 했으며 처음 사람의 뜻은 달랐으나 하나님을 믿었던 두 집안을 통해 하나님께 선 역사하셨습니다.

싱가폴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의사입니다. 공부도, 운동도, 참여하는 각종대회에서도 맨날 1등을 차지하는 능력있는 의사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안과를 전공하여 돈을 많이 못 벌자 성형외과로 전과하여 스포츠카를 수집하는 취미를 갖고 주말마다 화려한 파티를 열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찾아온 암말기라는 소식에 고통 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몇 달간 나를 행복하게 해 준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플 때 스포츠카를 끌어안고 운다고 내 맘이 편안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만남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삶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어떤 만남을 기대하시나요? 우리는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해야 합니다. 유명한 노래 가사도 있지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의 만남에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도록,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에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만남이 되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주신 만남들을 소중히 여기는 한 해가 되어 지길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 한주간의 말씀

“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

<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05, 454, 200

기도 :

성경 : 잠언 3장 1-10절

제목 : 내 계명을 네 마음에 간직하여라

1. 내용: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What)  
<문단구분>  
1~2절 내 계명을 네 마음에 간직하여라  
3~4절 <인자와 진리를 마음 속 깊이 새겨 두어라  
5~10절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2. 의미: 신앙생활의 자세 혹은 원칙입니다. (Why)
  - 1)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 2)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균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 3)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3. 적용: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자. (How)
  - 1)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 2) 진리 앞에 언제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 3) 하나님을 인정하며, 최선의 것으로 예물을 바칩시다.

## 이젠 안녕

1월 5일 졸업과 함께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정들었던 친구들과 이별을 맞이하며 강당이 울음바다가 됐었습니다. 졸업가는 역시나 <이젠 안녕>이었는데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부분에서 많은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선생님들의 졸업 축하 영상에선 자신의 반의 담임선생님이 나오실 때면 거의 절규에 가까운 함성 소리로 그 선생님의 인기를 증명해주기도 했습니다. 학업 우수상, 공로상, 개근상, 졸업장까지 4가지의 수상식이 진행될 때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지는 자신의 증명사진을 보며 몸서리치는 친구들도, 또 그걸 놀리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친구들은 커다란 꽃다발을 상자 몇 개와 함께 안아 들고 가족과 친구들, 선생님 등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포토타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선생님들께 사전에 작성된 롤링페이퍼도 받고 잘 지내라는 말, 졸업 축하한다는 말만 5만 8천 번 정도 들으며 저의 중학교 생활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중학교 생활을 하며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건 사고를 겪으며 오히려 모든 순간들이 기억 속에 깊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나이를 한 살 먹어가며 한 층 성장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제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며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푸른꿈사랑방 옥수민 학생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민수기 6 : 24-26  
10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고린도후서 5 : 17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552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정태일 목사

마태복음 6 : 25 - 34  
354 설교자  
새쌍사랑방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38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38(1)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한호남 정승희 / 봉헌위원 : 김이레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박민정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크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25b>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26-30> 교훈의 결론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33a>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먼저’를 강조한 것은 ‘순서’를 강조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의식주에 관한 것을 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제자들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을 깨우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우리도 개인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33b>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간, 물질, 노력의 모자라는 2%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박영선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멋쟁이학교 >

## 홈커밍데이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멋쟁이학교에서는 홈커밍데이가 있었습니다. 홈커밍데이란, 멋쟁이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을 멋쟁이학교에서 다시 한 번 초대하여 재학생들과 함께 게임, 레크레이션, 대화, 같이 밥을 먹는 등 각자 사회에 지쳐있는 동문들을 조금의 쉼과 편안함을 얻고 가게끔 합니다.

이번 홈커밍데이에서는 동문 총 29명, 재학생 31명(6학년 제외)이 참여하였습니다. 시간은 금요일 2시, 멋쟁이와 동문들은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소흘체육관에서 만나 함께 축구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축구는 총 세 번, 팀별 짝축구, 팀별 남녀 축구, 동문 대 재학생 축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축구를 통해 동문과 재학생들이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나게 축구를 한 후에 7시부터 저녁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저녁 식사 때에는 동문들이 예전의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먹는 방식과 식기를 예전의 문화대로 바꾸고 식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밥을 먹고는 교육관에 소그룹으로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후, 모두에게 재학생이 짝꿍 동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학생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맞게 질문하고, 동문들은 직접 주어진 질문에 대답하며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29명 동문들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모두를 소개하고 나서는, 모두가 큰 원을 이루어서서 '기대' 찬양과 목사님의 기도로 홈커밍데이를 마쳤습니다.

동문들에게는 고향에 온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홈커밍데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음 홈커밍데이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멋쟁이학교는 언제나 동문들을 반길 것입니다.

배움과 가르침

<단단한 기반 위에 세울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 태어나서 공동체학교를 다녔습니다. 꾸러기학교부터 어린이, 멋쟁이학교에 이르기까지 인생 대부분의 기억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해보았고, 함께 기뻐했고, 상처 받았고, 실패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린 시절 드문드문 남아있는 친구들과의 추억, 여름 바다의 불꽃놀이와 가을 제주도, 휴게실에서 구워 먹던 고구마. 설레어 잠도 설쳤던 친구들과의 첫 해외여행. 그리고 깜깜한 지리산에서 뛰어오던 선배들. 문서부로 활동하며 완성을 위해 지새웠던 수많은 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속삭였던 밤샘 수다. 유럽 여행 중 음악 속에서 친구들과 느낀 벅찬 감정의 교류와 환호. 이 모든 것들은 인생에서 깊은 여운으로 남아 힘든 순간 스스로를 지탱할 튼튼한 지지대가 될 것입니다.

짧게 보면 6년, 길게 보면 16년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여정 끝에 마지막 일주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렁지로서 글을 쓰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런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학교로 돌아올 것 같은데, 이제는 학교에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경험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다고 합니다. 물이 축적되어 호수가 되고 흙이 쌓여 산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행복한 삶, 서로 사랑하는 삶에 대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단단한 기반 위에 저만의 돌을 쌓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소중한 추억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새로운 시작도 많이 응원하여 주세요.

- 이나영 멋쟁이

<멋쟁이 코이노니아 35호에서 발췌>

## 해처럼 밝게 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며 드린 송구영신 예배 중 손을 씻고, 허리를 동이는 예식을 했습니다. 지체들이 앞으로 나가 각자의 허물을 씻어내고,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복되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송가 305장. 너무나 유명하고 자주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었습니다. 1절부터 죽~ 찬양을 하는데 3절 후반을 넘어 4절에 다다르자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하리라.'

수 없이 들어왔던 찬양의 가사였는데 유독 그 날은 찬송가의 가사가 가슴에 꽂히는 듯! 한 글자 한 글자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알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본향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저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말이죠.

찬양을 하며 지체들의 모습을 보니 예전에 느꼈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모두 나와 영원히 살 사람들이구나. 여기 이곳은 잠시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고 허락하신 곳이구나. 영원히 살아갈 셀 수 없는 사람들 중에 나와 여기서 함께하는 사람들이니 이 얼마나 귀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지체들을 둘러보니 정말 모두 해 같이 빛나는 듯 했습니다.

영원히 살 우리가 이 땅에서 연연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한정된 육체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즉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주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더욱 힘이 납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두 해 같이 밝게 살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전도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550장, 478장

성경 : 시편 107편 21-43절

말씀 :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일본의 지진 피해를 겪은 이들을 위해>  
새해 첫날부터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진도 7의 강진이 일어나서,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집을 떠나 피난해 있는 사람들은 4만명에 가깝습니다. 공포와 절망에 싸인 피난민들과 구난과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공협을 위한 기도>

한공협에 속한 모든 공동체와 교회들이 각자 소명에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한공협 모임과 연합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기대연 컨퍼런스로 출타 중에 있는 교사들을 위해  
새해를 맞은 사랑방 식구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수요일 정오 기도회를 시무로 하여 다시 공동체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아침 기도와 점심 공동 식사이지만,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3(수) ~ 1/5(금) 기대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정태일 목사님께서 개회 예배 설교를 해주셨고, 선생님들 몇몇 분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생활공동체 영성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머물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